농협전남본부 '사랑의 쌀' 200포 전달

김용복(왼쪽) 농협전남지역본부장은 27일 전남도를 방문,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등 소외된 이웃들에게 써달라며 박준영 전남도지사에게 사랑의 쌀 200포(20㎏)를 전달했다. 〈농협전남본부 제공〉

조선대 한국학자료센터 개소식

호남지역에 산재한 기록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자료화해 대중들에게 서비스하는 조선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센터장 김경숙 교수)가 지난 26일 오후 법학전문도서관 5층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복지시설 봉사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단장 장명식)은 최근 목포시 영해동 하나 노인복지관에서 점심 배식을 돕는 자원봉사 활동을 벌였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광주도시철도공사, 남광주역 일일명예역장 위촉

광주시 도시철도공사는 27일 광주시의회 조호권 부의장을 광주지하철 남광주역 일일명예역장으로 위촉, 승객 안내·시설물 점검 등 역장 업무 체험행사를 가졌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제공〉

28년만에 무죄판결 받은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 5·18묘지 참배

"언젠가는 정의가 승리하리라 믿었어요"

"영문 모르고 끌려가 고문을 당하다가 '아람회'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다. 아람이는 친한 고교 동창의 딸 이름인데…"

아람이 백일잔치에서 만나 '아람회'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했다는 게 혐의였다.

지난 1981년 7월19일 중학교 임시교사로 재직 중이던 박해전(55)씨는 집에서 밤늦게까지 학생들 기말고사 시험지를 채점하다가 들이닥친 경찰에 체포됐다.

다짜고짜 매타작이 시작됐고 며칠간 잠을 재우지 않거나 거꾸로 매달아 놓고 얼굴에 물을 붓는 고문이 자행됐다. 고문실에서 수감된 방까지 10m밖에 되지 않았지만 엉금엉금 기어갔고 나중엔 강제로 유서까지 써야 했다.

박씨는 "30일 넘게 맞고 또 맞았습니다. 인간 도살장이었어요. 이렇게 죽는구나 싶더라구요. 자꾸 뭘 쓰라는데 뭘 쓰라는 건지…. 강제로 유서까지 썼지요"라고 당시를 떠올리며 진저리를 쳤다.

저도 모르게 '아람회'의 조직원이 돼 버린 박씨는 어느 날 자정을 넘겨 검사 앞에 신문을 받으러 갔다. 가는 길에 경찰이 시키는 대로 대답하라고 신신당부했지만 검사 앞에 섰더니 억울했다.

"억울하다고 눈물을 흘렸더니 검사가 '나쁜 놈'이라면서 뺨을 때리던데요. '다 한통속이구나' 절망감이 깊었어요. 재판을 받으면 또 풀리겠지 희망을 가졌지만 징역 10년이 확정됐죠."

그렇지만 '아람회'가 용공조작 사건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고 나라 안팎으로 비판 여론이 깊어지자 불법 감금된 지 2년 반 뒤인 1983년 12월 석방됐다.

국가보안법과 계엄법 등 위반 혐의로 억울하게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아람회 사건'의 피해자 (사진 오른쪽부터 조영건(70)씨, 김현칠(55)씨, 박해전(56)씨, 박천희(50·고 이재권씨 부인)씨, 장두석(72, 5·18 유공자)씨, 정해숙(75)씨) 등이 23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 있는 고 이재권씨의 묘소에서 판결문을 읽고 있다.

박씨의 친구인 이재권·김창근·김현칠씨와 아람이의 아빠 김난수씨, 박씨의 고교 은사 황보윤식씨와 박씨가 배움을 청해 알게 된 인근 중학교 교사 정해숙씨가 모두 '아람회'로 묶여 고초를 겪었다.

석방되기는 했지만 이 사회에 없느니만 못한 삶이 계속됐다. 직업을 구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 인간관계도 모두 끊겼다. 상대방이 경찰에게 괴롭힘 당할 게 뻔한데 만나자는 엄두를 낼 수 없었다.

1998년 재권씨가 고문 후유증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다.

"억울한 누명을 벗지 못하고 가버렸어요. 우리에게 더 큰 아픔이 됐죠. 우리끼리 아픈 심신을 보듬어주면서 피눈물나게 견뎌냈어요.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고 안간힘을 썼죠". 박 씨의 눈에 눈물이 비쳤다.

2000년 재심을 청구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가 세월이 흘러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아람회' 사건에 대해 재심 권고를 했다. 재심을 청구한지 9년, 사건이 발생한 지 28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박씨는 "28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기쁘다, 슬프다 그런 감정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쇠사슬에 너무 오래 묶여서 고통스러웠나 보다"라며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를 보게 됐다. 사법 정의를 용기 있게 실천한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회를 털어놨다.

관결이 나고 이틀 후인 23일 박 씨와 일행은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 다녀왔다. 재권씨의 무덤에 '무죄'라 적힌 판결문을 바쳤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람이도 어느덧 어른이 됐다. 사건의 상처가 큰 탓에 가족은 한때 아람이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다.

박씨는 "아람이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면서 "그 아들이 최근 백일이었는데 모두 백일잔치는 아주 싫어해서 돌잔치를 하기로 했다"며 웃었다. /연합뉴스

"전 도민이 인재육성 참여해야"

신승남 전남 인재육성재단 초대 후원회장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전 도민이 참여 의식을 갖고 꾸준한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27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출범식을 가진 전남 인재 육성재단의 초대 후원회장을 맡은 신승남(64·사진) 회장은 "아직도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인재 육성 재단을 만든 것은 참 잘한 일이다. 장학재단과 후원회를 최대한 활용해 지역 내 훌륭한 인재를 많이 키워내야 한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전남 인재육성재단의 성공 여부는 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각종 캠페인 등을 통해 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수가 모이면 큰 힘이 되는 만큼 단돈 1천원이라도 가능한 전 도민이 참여해야 한다"면서 "향우 기업들에 대한 모금과 함께 후원회 저변 확대에 힘을 쏟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이날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갈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재)전남인재육성재단 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장학기금 모금활동에 들어갔다.

후원회는 전남대·목포대·순천대 총장과 금호아시아나그룹·부영·미래에셋 등 지역 연고기업 대표와 목포·여수·순천 광양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및 지역 기업 대표 등 22명이 임원으로 위촉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세로 50m '안중근 손도장 프로젝트' 추진

JS씨어터 연극 제작사

가로 30m, 세로 50m 크기의 대형 천에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을 국민의 손도장을 모아 재현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연극 '대한국인 안중근'의 제작사 JS씨어터(대표 표재순)는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을 기념해 '대한국인 손도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다음달 3일 오후 2시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열리는 '대한국인 안중근' 공연에 앞서 주인공 안중근 역을 맡은 최수종을 비롯한 출연 배우 및 제작진의 참여로 시작된다.

한편 안의사 의거 100주년을 맞아 특별 제작된 '대한국인 안중근'은 오는 6월 23~24일 이틀간 광주 5·18기념문화관에서 모두 4차례 공연되며 대전과 부산에서도 관객들을 만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하버드대서 안평대군 글씨 추정 작품 발견

조선시대 초기 명필을 대표하는 안평대군 이용의 글씨로 추정되는 서예 작품이 미국 하버드대에 소장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시민단체인 '문화재 제자리 찾기'(사무총장 혜문스님)가 27일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미국 뉴욕, 보스턴 등지에서 우리 반출 문화재를 조사하다가 미군정기 주한 미대사관 문정관을 지낸 그레고리 헨더슨이 반출한 안평대군 추정 글씨가 하버드대 핸더슨컬렉션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오는 28일 현지로 가서 실물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국제 뇌종양 심포지엄 30일 화순전남대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뇌종양클리닉·감마나이프센터(부장 정신 교수)는 개원 5주년 기념으로 '2009 International Brain Tumor Surgery Symposium(국제 뇌종양 심포지엄)'을 오는 30일 오전 10시 지하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심포지엄의 주제는 '수술이 어려운 뇌종양의 수술'이며 특히 '말안장부위 종양', '뇌실내 종양', '후두와 양성종양'의 수술 치료에 초점을 맞춘 강의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뇌종양수술의 해외 석학들도 참석하며 화순전남대병원의 문경섭·정태영 교수 등 국내 석학들의 강의는 물론 국내의 젊은 신경외과 의사들이 준비한 증례 토의도 예정돼 있다.

/채희종기자 chae@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촉

▲기원태(광주일보 광산주재·국장)·장애숙씨 장남 령환군 신주철·김행선씨 장녀 옥주양=30일(토) 오후 1시 조선컨벤션웨딩홀 1층(춘추관)

▲윤성철·김근자씨 장남 훈아군 양규성(광주시 동구 총무국장)·강영숙씨 삼녀 연경양=30일(토) 낮 12시20분 오페라하우스 1층(오페라 독실)

▲김남곤((주)정창포장 대표)·김순영씨 차남 세욱(영풍문고)군 정경호·김종숙씨 장녀 미현양=30일(토) 낮 12시40분 상무리츠컨벤션웨딩홀 2층(데이지홀)

▲형숙자씨 차남 박현규군 정영옥(무등고시학원 원장)·이부귀씨 장녀 혜선양=30일(토) 낮 12시 광주 오페라하우스 3층(그랜드특실)

▲김정실·장강자씨 아들 달용군 김원욱(광주영어방송 사장)·정숙이씨 차녀 지영양=31일(일) 낮 12시30분 광주무등파크호텔 4층(컨벤션홀)

동창·동문회

▲북성중 제28회 동창회(회장 윤종철) 월례회= 28일(목) 오후 7시 양산동 신바람 하우스. 062-573-4440.

▲전남대 국문과 총동문회= 30일(토) 오후 3시 전남대 인문대 1호관. 010-2614-3830.

▲옥과고등학교 32회 동창회(회장 최규필) 월례회= 30일(토) 오후 7시 북구 신안동 사랑방신문사 맞은편 옥천면옥. 010-3203-4392.

▲송원고 총동문회(회장 김영문) 월례회= 6월3일(수) 오후 7시 백운동 오리천지. 062-674-5292.

▲광주 사대부중 제4회 동창회(회장 전성수) 정기모임= 6월4일(목) 오후 7시 유명회관. 062-512-5774.

향우회

▲재광 순창 향우회(회장 공병철) 월례회= 29일(금) 오후 6시30분 중앙예식장 옆 동원식당. 062-233-7892.

▲재광 영암군 향우회 제60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30일(토) 오후 5시30분 상록회관 3층. 062-350-5000.

▲재광 나주 향우회(회장 나무석) 제18차 정기총회= 30일(토) 오후 4시 염주체육관 국민생활관 세미나실. 062-227-8880.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 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장애차별 상담=국번 없이 1331, 우편 방문-광주시 동구 제봉로 광주은행 본점 6층.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률 무료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자리 봐주기 등(실버에 한함). 062-365-8228.

모집

▲전통문화 보전 연구회= 한문·예절·다도·시조 등 우리 전통문화를 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회원 모집. 062-268-5588, 011-9440-2512.

▲북구 골든벨 축구클럽 동호회원 모집=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분. 20세 이상, 선수출신 환영. 010-3608-1060.

▲(사)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광주시지부 베트남 참전 전우·회원 수시모집=서구지회(018-645-2631), 남구지회(010-8000-6320)

▲광주FC 축구회원 모집=매주 토요일 오후 운암동 서강고 운동장. 017-656-3431.

▲한마음 장애인자립 생활센터 장애인 사물놀이 모집=장구, 징, 꽹과리, 북 함께 하실 장애인(손이 자유로우신 분), 악기 후원 받음. 062-431-8025, 010-9676-0828.

▲늘 기쁜 지역 아동센터 공부방 무료 수강생 모집=초등학생, 방과후 숙제 및 학습 지도. 062-511-6771.

부음

▲신종관씨 별세 창현·용현·홍현·재현·주현·숙향씨 부친상=발인 29일(금) 주월동 나라장례식장 402분향실. 062-670-4444.

▲임애순씨 별세 이준기·정기·경선·경숙씨 모친상=발인 29일(금) 그린장례식장 10분향소. 062-250-4410.

▲박기영씨 별세 기모·도영·시억·선희씨 부친상=발인 29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박남기씨 별세 옥봉·석봉·태봉·우봉씨 부친상=발인 29일(금) 그린장례식장 12분향소. 062-250-4412.

▲김수복씨 별세 장성호·성민·성영·공례·순자·성희씨 모친상= 발인 28일(목) 학동 금호장례식장 201호. 062-227-4000.

▲강기철씨 별세 도석(전 시의원)·도연(버디인터내셔날 대표)·도욱·경자씨 부친상 김일룡(광주 약사회 회장)씨 빙부상=발인 28일(목)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문정환씨 별세 형석·형관씨 부친상=발인 28일(목) 학동 금호장례식장 402호. 062-227-4000.

▲이복동씨 별세 성용·옥희씨 부친상=발인 28일(목) 주월동 나라장례식장 202분향실. 062-670-4444.

▲순양순씨 별세 윤길수·길용·순금·막내씨 모친상=발인 28일(목) 주월동 나라장례식장 201분향실. 062-670-4444.